장성호 수변길 '출렁다리' 로 걷는다

길이 154m…한번에 1천명 건널 수 있어
장성호 감상·수변길 완주시간 단축 장점

지난해부터 입소문을 타며 아름다운 트레킹 길로 떠오른 '장성호 수변길' 에 걷는 재미가 더해진다.

장성군은 장성호 상류 지역인 장성읍 용곡리에 수변길을 잇는 출렁다리를 완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성군은 장성호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장성호 수변길 협곡에 길이 154m, 폭 1.5m 규모의 출렁다리를 조성했다.

오는 25일 개통하는 출렁다리는 한 번에 1,000여명이 건널 수 있다. 다리 양 끝에는 비상하는 황룡 두 마리를 형상화한 21m 길이의 주탑이 우뚝 솟아 '옐로우시티' 장성군의 도약을 보여주도록 설계됐다.

이번에 조성된 출렁다리는 수변길 시작점 1.2㎞ 지점과 2.7㎞ 지점을 바로 연결하고 있어 수변길 완주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위에서 장성호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고 호수도 한층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성군은 출렁다리가 관광객들이 장성호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아찔한 즐거움까지 만끽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호의 멋진 풍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즐기고 이곳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풍경과 최대한 어울리게 설계했다"며 "무엇보다 이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다리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레킹길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장성호 선착장과 북이면 수성리를 잇는 7.5㎞의 트레킹 코스인 '장성호 수변길' 을 조성한 바 있다.

산길과 호반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조성돼 숲과 호수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장성호 수변길' 의 백미는 호숫가를 따라 설치된 1.23㎞ 길이의 나무데크길이다.

특히 호숫가 가파른 절벽을 따라 세운 나무데크 다리가 주변 경관과 어울려 그림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장성호 수변길' 은 지난 2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대한민국 대표 걷기길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장성=전일용 기자

장성읍 용곡리 수변길을 잇는 출렁다리가 오는 25일 개통된다.

내고장 사람들

유두석 장성군수는 19일 오후 2시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18년 제3회 장성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한다.

장영식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2시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에 나선다.

조용익 담양부군수는 20일 오전 8시30분 군청 부군수실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한다.

함평군은 최근 함평천지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소규모 집단급식소 관리자 및 종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함평 여름철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함평군은 최근 함평천지종합복지관 강당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집단급식소 관리자 및 종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식중독 환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나기열 민원봉사과장은 "신선한 식재료 구입에서부터 보관, 배식 등 자체 위생시스템을 구축해 식중독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본 교육에서는 정명희 위생담당이 강사로 나서 개인위생 관리방법, 식재료 구입 및 보관요령, 안전한 조리방법, 조리장 및 급식 공간 청결관리법 등 단계별 식품취급 방법을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도 개최하며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함평=윤예중 기자

무안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운영

무안군은 최근 극심한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구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일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를 운영한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는 희망버스 사업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버스에 태우고 구인기업의 현장에 가서 시설을 둘러본 후, 면접과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맞춤형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다.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은 삼향지역의 ㈜대호냉동상사와 청계농공단지의 (유)성지에프앤디, 삼영산업㈜, ㈜신영하이테크 등 4개 기업체이며 사무, 회계, 영업, 기계제조 등의 일을 함께 할 13명의 근로자를 찾을 계획이다.

전라남도 일자리종합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희망버스는 구직자들과 사전 상담을 통해 요구에 맞는 일자리를 연결해 줌으로써 취업 성공률과 구직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무안=박주현 기자

화순 하계 전지훈련 일정 시작

7월부터 배드민턴·축구 501명…경제 활성화 보탬

전국 최고 체육시설과 온화한 기후조건을 갖춘 화순군에서 하계 전지훈련이 본격 실시된다.

18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하계 전지훈련은 2개 종목으로 배드민턴은 7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14일간 하니움체육관 등에서 108명이 참여한다. 축구는 7월27일부터 8월3일까지 8일간 화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16개팀 393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4계절 전천 후 활용 가능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를 비롯한 이용대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시설이 양호 할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도 인접해 전훈지로 제격이다.

화순군은 전지훈련 팀에게는 각종 체육시설 무료 사용 및 수송차량 지원, 음료·간식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전지훈련이 끝나면 참가 선수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제시된 의견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시설 확충과 선수 지원을 늘려 나가고 있다.

전지훈련은 기 설치된 체육시설과 장소 등을 제공하고, 여름방학 시즌에 전지훈련을 온 선수단 및 가족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한국은행 '관광지출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계수' 를 적용한 결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종목으로 인해 5억3,7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체육과 연계하여 전지훈련 팀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며 "배드민턴, 야구, 복싱, 축구 전지훈련 팀을 집중 유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서호령 기자

관광지서 스마트폰 켜면 재미 두배
장성 AR게임 '스탬프 팝' 출시

장성군은 주요 관광지에서 방문 인증 도장을 모으는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게임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관광지는 황룡강변, 축령산, 백양사, 필암서원, 홍길동테마파크, 남창계곡, 장성호수변길, 장성호관광지, 금곡영화마을, 평림댐 장미공원 등 10곳이다.

관광지마다 도장이 하나씩 숨어 있는데 '포켓몬 고' 와 게임 방식이 같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탬프 팝' 앱을 내려받아 사용자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한 뒤 관광지를 방문하면 된다.

게임을 즐기는 동안 역사와 문화 등 관광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장성군은 도장을 일정 수 이상 모으는 이용객에게 매달 선착순으로 천연 국물팩, 찰발아현미 등 선물을 증정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황룡강 노란꽃잔치 등 지역 축제와 결합한 증강현실 게임도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동신대 '나주학연구소 건립' 시민공청회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은 나주시 역사도시사업단과 오는 22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나주학연구소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1부에서는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사례:익산학)' 을 주제로 익산학연구소 임승배 소장이 특강을 한다.

2부에서 김춘식 동신대 교수가 '나주학연구소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연구' 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 뒤 시민과 전문가들이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는 나주 시민들과 역사·문화·예술·정치·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나주시 유관부서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과 나주학연구소 건립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사전등록 없이 나주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황애란 기자

담양시장 재건축 공모전

담양군이 담양시장 재건축을 위한 '담양시장 루프탑 가든 디자인&플랜 공모전' 을 오는 7월6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진입로 등으로 효율성이 낮아진 담양시장의 기능을 복원하고 옥상정원의 형태로 재탄생시켜 담양의 대표적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됐다.

공모전 참가자격은 제한 없이 전문가,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 중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작품은 당선작 1명(1,000만원), 우수상 1명(300만원), 장려상 2명(100만원) 등 총상금 1,500만원의 규모로 시상할 예정이다.

담양군은 당선 디자인에 대해 향후 시장 재건축 사업 시행 시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담양군청 지역경제과(061-380-3043)로 문의하면 된다.

담주 다미담예술구 정헌기 사업단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담양을 대표하는 문화 생태적 공간이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 사 010-4601-5323
- 나 주 010-5617-2605 / 010-3713-7458
- 함 평 010-3773-2522
- 영 광 010-8666-2882
- 무 안 010-3621-8989
- 화 순 010-3666-5888
- 장 성 010-3666-1300
- 담 양 010-4154-8277
- 장 흥 010-3613-6114

클릭! 고향 소식

영암 수리온 헬기 취항식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최근 영암산림항공관리소 격납고에서 산림청 최초로 도입된 수리온 헬기(KUH-1FS) 취항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항식에는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을 비롯해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영암산림항공관리소 민병준 소장은 "수리온 헬기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조기 운용안정화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목포 국제관광전 참가

목포시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8 한국국제관광전' 에 참가해 관광목포 홍보관을 운영했다.

목포시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대한민국 유망축제인 목포항구축제와 국내 최장거리(3.23㎞)인 목포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한 우수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포만의 상품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영광 운행제한차량 단속

영광군은 18일 영광읍 우평리 검문소(국도23호선) 구간 등에서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합동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주관으로 영광군, 영광경찰서가 참여했으며 과적차량, 길이, 너비, 높이 등 적재 초과, 적재불량 차량 등을 대상으로 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예방 단속 활동으로 도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곽용순 기자

무안경찰 행복가족 사진관

무안경찰서는 지난 17일 무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족 10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사진을 촬영하는 '행복가족 사진관' 을 열었다.

'행복가족 사진관' 은 다문화가정의 가족사진을 촬영해 주고 액자와 포켓사진으로 제작·증정하는 서비스다.

이을신 무안경찰서장은 "다문화 가정의 안정성 있는 정착을 위해 맞춤형 지원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